전략동맹 구체화…핵우산 명문화 될 듯

‘회담+오찬’ 李대통령 최고수준 예우

백악관 집무실 ‘오벌 오피스’서 회담

■미리보는 韓美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은 두 정상 간 본격적인 첫 공식 회담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이 대통령은 취임후 1년 4개월만에 6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4번의 회담을 가졌고, 오바마 대통령과는 이번이 두번째다.

물론 이 대통령은 오바마와 3번 전화통화를 가졌고, 지난 4월 영국 런던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첫 회담을 가졌지만 양 지도자간에 공식 개최되는 본격적인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으면서 돈독한 양국 우호 관계를 과시하게 된다.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 오찬에 이르기까지 2시간 남짓 진행되는 정상회담은 오바마 미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이례적인 수준의 의전이라는 평가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통 오찬 없이 회담만 하거나 오찬을 겸한 회담을 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왔고 회담 시간도 1시간 정도만 할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장인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oval office)’ 안에서 이 대통령을 맞아 오전 10시 30분부터 15분간 단독 정상회담을 가진 뒤 11시 20분까지 양국 각료들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오전 11시 30분부터 50분까지 백악관내 ‘로즈 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는 데 두 정상이 2-3분 정도씩 모두 발언을 한 뒤 한미 양국 기자 2명씩 4명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로즈 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날 기자회견은 CNN 등 미 전국 TV채널 5개사가 생중계한다.

두 정상은 또 기자회견 직후인 낮 12시부터 12시 45분까지 백악관내 ‘가족연회장(family dining room)’에서 단독 오찬을 하는 것으로 두번째 정상회담을 마무리한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한다.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지난해 이 대통령과 부시 전 미 대통령이 합의했던 ‘21세기 전략동맹’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을 제공한다는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도 명문화될 예정이다.

두 정상은 또 이번 회담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지도 주목된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철수 업체 ‘남으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처음으로 개성공단 전면철수를 결정한 업체인 ‘개성스킨넷’의 공장설비를 실은 트럭이 15일 오후 파주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우라늄 농축 선언 큰 영향력 없어”

美 전문가 “北-이란 핵 기술 공유가 더 큰 문제”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은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반발해 북한이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등을 선언한 데 대해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는 그는 “그 발표 자체로는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미 북한이 최소한 우라늄 농축을 시험해오고 있다고 믿어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북한이 이란과 같은 국가와 핵무기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큰 우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북한의 성명 발표에 대한 미국의 향후 대응과 관련, “미국은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과 중국, 러시아 및 국제사회와의 협의 하에 북한이 협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군사적 방안을 포함하는 방어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 지도자들이 국내 정치적 상황과 장기 전략적 상황이 절망적임을 깨닫고 핵무기를 외부의 압박에 대응하고 국내 지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추가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그런 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면 정상회담 기간에 시험을 하려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검찰 압박 위한 준비된 마지막 카드?

박연차, 처음부터 盧 전대통령 거명 배경은

‘박연차 게이트’ 장본인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검찰에 구속된 직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장 먼저 거명했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박 전 회장이 이런 진술을 하게 된 배경에 시선이 쏠린다.

대검 중수부가 우여곡절 끝에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은 끝내 공개하지 않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특히 박씨가 구속되자마자 검찰이 증거를 들이대며 추궁도 하기 전에 노 전 대통령을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의 이름과 함께 금품 수수자로 먼저 진술한 이유는 세간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에 대해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박 전 회장이 처음부터 거물급 인사들을 거론함으로써 ‘검찰이 이래도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아보려 했던 게 아니었겠느냐”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섭섭함이 쌓였을 수 있고, 돈을 워낙 많이 뿌렸으니까 ‘가장 센 사람’만 수사하고 끝내자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방 사업가에서 대통령 후원자로 유명해진 박씨는 정권교체 후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해외에서 신발공장이나 운영하는 내가 대통령한테 무슨 도움을 받았겠느냐. 후원자로 알려져 표적만 됐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박씨는 작년 7월 말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을 중심으로 회사 임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대책팀을 꾸려 팔방으로 로비를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인정할 건 인정하고 회사는 살리자’는 쪽으로 작전을 바꿨다고 한다.

박씨를 비롯한 대책팀은 금품수수자 가운데 누구를 거명할지 고민하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네 명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런저런 분석과 관계없이 노 전 대통령과 20년 넘는 인연을 맺어온 박씨가 ‘盧 서거’ 소식에 짙은 회한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검찰에서 노 전 대통령을 제일 먼저 거명한 그의 심적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키운다. /연합뉴스

미주대륙 밖 신종플루 환자 첫 사망

스코틀랜드 여성 1명 숨져

영국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돼 치료를 받던 환자가 숨졌다. 아메리카 대륙 밖에서 신종플루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영국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대변인은 14일 “신종플루에 감염돼 글래스고 지역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10명의 환자 가운데 1명이 오늘 숨졌다”고 밝혔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사망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영국 언론들은 15일 38세의 여성으로 신종플루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지난 1일 임신 29주만에 조산한뒤 상태가 악화됐다고 보도했다. 아기는 다행히 신종플루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연합뉴스